

‘교양’에 앞서 ‘실리’ 선호하는 경향

시내 대형서점, 올 상반기 판매도서 집계

6월을 마감하면서, 서울 시내 대형서점들이 집계한 올 상반기 베스트셀러 목록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판매부수를 토대로 상위 50권을 선정하는 한편 각 부문별 판매순위까지 보여주는 이들 베스트셀러 집계표는 서점별로 다소간의 편차는 있으나 최근 일반대중의 독서경향을 나타내는 의미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문학류 강세, 인문사회과학 퇴조

이들 대형서점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판매한 도서집계에 따르면, 우선 전체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예년 같은 기간의 증가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현상은 경기침체와 선거 등의 정치현안이 국민들의 관심 전면에 등장하면서 책을 접할 ‘여유’를 미처 만들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이 서점측의 분석이다.

종합순위 50위권에 든 도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에 하향세를 보였던 문학류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대신 인문·사회과학부문이 퇴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서점 집계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라즈니쉬의 철학우화집 「배꼽」(장원사)을 비롯해서 故이은성씨의 「소설 동의보감」(창작과비평사), 「친구가 화장실에 갔을 때」(신진호, 혜진서관) 「내가 여전히 나로 남아야 함은 아직도 널 사랑하기 때문이다」(김기만, 지원)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욱더 마음 저리는 것은 작은 웃음이다」(서은영 엮음, 박우사) 등 일련의 무명시인의 시집들이 수위를 점하고 있고 10위권 도서들도 문학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50위권내 도서들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시·소설·비소설류가 각각 10종 안팎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과학·인문과학류가 4~8종 정도, 그리고 자연과학·아동도서류가 2~4종으로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소설부문의 경우 지난해 상위권을 누렸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물 위를 걷는 여자」와 같은 여성소설류가 퇴조하고 다양한 내용의 국내외 소설들이 각축을 벌이는 양상을 띠고 있다. 국내소설로는 현대건설 이명박회장의 입지전적 인생을 모델로 한 기업소설 「그대의 야심, 첫번째」(이호, 성림출판사)를 비롯해서 김원일, 이문열, 한수산 등 유명작가의 작품집이 꾸준한 인기를 누렸으며, 두터운 국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에릭 시



중로서적의 베스트셀러 코너.

겉의 「닥터스」(김영사)와 앤 타일러의 「종이시계」(동문사) 「우연한 여행자」(혜서원),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대흥) 등의 외국소설이 부상했다. 한편 「소설 동의보감」 「죽은 시인의 사회」 등은 지난해의 여세를 몰아 계속 수위를 지킴으로써 장기 베스트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명상서적·대중시집 두드러져

그러나 문학류의 강세는 소설보다는 비소설과 시집부문에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비소설부문에서는 상반기 최대의 베스트셀러인 「배꼽」을 비롯한 처세적 인생론을 담은 명상서적류와 「그대에게 줄 말은 연습이 필요하다」(신달자, 자유문학사) 「내가 나로 다시 태어난다면」(김기린, 삼한) 등 감상적 수필류가 압도적이다. 이밖에도 방송·광고계의 뒷얘기를 담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똥」(이계진, 우석)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정해자, 미완)와 철학자 김용옥씨와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의 대화를 정리한 「대화」(통나무), 최근 생명운동과 고백운동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인 김지하씨의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동광) 등이 눈에 띈다.

시집부문에서는 사랑, 이별, 고독 등 ‘감정 호소형’ 시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시집은 약력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무명시인의 것이 대부분으로, 청소년층을 겨냥한 내용과 편집으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면서 ‘대중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정식 등단한 기성시인들의 시집들은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했는데, 「계 눈

속의 연꽃」(황지우)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박라연)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유하, 이상 문학과지성사) 등이 비교적 문학성과 상업성 모두에서 성공한 시집들로 꼽힌다.

인문과학부문에서는 최근들어 붐을 이루고 있는 쉽게 풀어쓴 동양고전의 일종인 「莊子-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윤재근, 동지)가 1년 가까이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도가 철학을 대표하는 장자의 사상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낸 이 책은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유시민, 푸른나무) 「철학에세이」(편집부, 동녘)는 특히 대학생 필독서로 자리잡으면서 꾸준한 판매부수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과학부문은 이념도서가 퇴조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대신 기업경영과 경제관련 실용서가 부쩍 늘어났다. 「재미있는 경영이야기」(조동성 외, 유나이티드컨설팅그룹) 「정보사회와 기업문화」(이어령 외, 한국전기통신공사) 「멀티레벨 마케팅전략」(고바야시 다다시, 한국LCA) 「인재의 육성과 활용」(이도선 외, 미래연구소) 등 경영사례집이나 실제 응용 가능한 경영전략을 소개한 도서들이 대부분이다. 「전예측 1990년대의 세계」(마키노 노보루, 청계연구소) 「2000년의 한국」(이태형, 동아출판사) 등 국내외 정치·경제전망을 담은 미래예측서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권력이동」(한국경제신문사)은 사회과학부문 1위를 차지했다. 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부의 창출에 의한 미래의 권력변화를 진단하고 있는 이 책은 최근 경제분야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 어필하면서 전문가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연과학부문은 과학적·논리적 사고체계를 유도하는 문제풀이식 도서들과 물리학·수학관련서가 인기를 끌었다. 「이야기 과학독스」(마틴 가드너, 사계절) 「시간의 역사」(스티븐 호킹, 삼성이데아) 「묘한 생각 묘한 풀이」(이기한, 전원문화사) 등이 대표적.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문제 관련도서들도 베스트셀러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연과학서들은 다른 부문에 비해 번역서가 대부분으로 국내 과학분야의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출판사·저자 고른 분포 나타나

이상의 베스트셀러 집계를 통해 본 올 상반기 독서경향 중 특징적 현상으로 크게 두가지 점을 지목할 수 있다. 첫째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문학류가 강세를 보이면서 작품성 위주의 순수문학물보다는 수필이나 단순감상용 시집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문학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필 중에서도 여성독자를 겨냥한 종래의 ‘감성수필’과 함께 인도를 중심으로한 동양의 신비주의 색채를 띤 명상서적이거나 처세술에 관한 도서들이 부상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인의 현실도피심리를 반영하는 한편 전인적인 교양주의에 바탕한 전통적 독서관에서 벗어나 실리위주의 실용독서를 선호하는 최근의 추세를 말해주는 것으로, 가벼운 일회용 독서경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로 특정 출판사나 저자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이번 상반기 베스트셀러 50위권에 신진출판사들이 대거 진입해 출판계에 화제를 낳고 있으며, 출판사별·저자별 분포에 있어서도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화 현상에 대해 독자의 주체적 독서경향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있는 반면, 무명저자의 ‘우발적’ 베스트셀러의 양산이라는 부정적 일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드시 일치하진 않지만, 저자나 출판사에 대한 인지도가 책의 질을 일정부분 담보하고 있다면, 특히 최근의 베스트셀러 시집들이 거둔 의외의 성공은 올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출판계의 ‘이변’이자 ‘호재’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정소연 기자